

사회

# 광주 원룸 건축주 무더기 철퇴

## 미등기 전매 탈법 극성... 지방세 17억 탈세 209명 적발

### 사용승인 없이 입주시키고 안전검사 안 받아

원룸 주택을 신축한 뒤 사전입주 및 미등기 전매를 통해 20여 원대의 지방세를 탈세한 건축주 2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동안 원룸 건축 열기가 확산하면서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사전 입주와 미등기 전매행위가 광역단체 감사에 대거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원룸 건축업계와 부동산 업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6일 자치구 종합감사 결과 원룸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세입자를 사전 입주시킨 뒤 미등기 전매행위로 지방세 등을 내지 않

은 건축주 209명을 적발하고, 이들이 탈세한 지방세 1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세입자를 사전에 입주시킨 건축주와 건축사 등에 대해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 건축주 A씨는 지난해 1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원룸에 입주자 13명을 입주시키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4개월 동안 임대수익을 올린 뒤 같은 해 5월 등기없이 B씨에게 원룸을 전매했다. 이어 B씨는 구청에

건축주 변경신고만 한 채 지난 9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취득세 등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완공된 건축물이더라도 관할 구청의 사용 승인 이전에는 공사 중인 건축물로 남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부 건축주들이 이같은 방법을 통해 1억원의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특히 원룸의 사전 입주행위는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지방세 등을 탈세하는 것도 문제지만, 소방·전기 등 건축물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기 때문에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도 안고 있다는 지적

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미등기 전매와 사전입주 행위는 세입자 거주 여부, 부동산 매매 여부 등이 개인 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으로, 이러한 대규모 적발사례는 광주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감사관실 감성배(세무 6급)씨가 주민등록증 전입 등록, 토지 이동현황, 상·하수도 사용료 내용, 수도 및 가스 사용료 등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끈질긴 노력 끝에 사전입주와 미등기 전매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끼꼬기 체험하는 어린이

겨울방학에 들어간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26일 광주시 북구 건국동 직물공예체험학습장에서 짚으로 새끼꼬는 법을 배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장애 어머니 살해 '패륜 아들'

## 단순 변사로 위장... 완도경찰, 20대 영장

완도경찰은 26일 지적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살해한 이모(25)씨에 대해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1일 새벽 3시경 완도군 고금면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김모(50)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김씨의 사체를 전기장판 위에 놓고 이 불로 덮어 단순 변사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목졸라 살

해한 흔적을 없애기 위해 사체가 빨리 부패하도록 전원을 켜 전기장판 위에 김씨를 올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범행 이틀 후, 마을 주민

의 변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당시에는 부검을 통해서도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살던 아들인 이씨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겨 5개월 가량 행방을 추적한 끝에, 지난 24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6년 전 가출했다가 돌아온 어머니에 대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목포농협 조합원, 부정대출 의혹 조합장 고소

목포농협 일부 조합원이 부정대출과 공금 유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도내 최다선'인 9선의 오모(76) 조합장을 고소했다.

김선주 씨 등 조합원 94명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 조합장이 1인당 대출한도(20억원)를 초과해 건설업자인 이모씨에게 150억200만

원을 대출하는 등 대출 과정에 의혹이 많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또 조합원도 아닌 이씨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지급한 것은 공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목포농수산 지원 불법무상 양도, 직원 신규 채용, 비료 부당 거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부당대출 건은 이미 중앙회 감사를 받아 조합장이 3개월간 정직을 받는 등 종결된 사항이고, 한 훈의 손실 없이 이자까지 다 받았다”면서 “직원 신규 채용이나 비료 부당 거래 부분은 전혀 생소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성기자 yousou@

### 음식점 신발 도난 주의보

#### 송년모임 틈타 도둑 기승... 피해 잇따라

회사원 한모(51·광주시 광산구)씨는 최근 지인들과 송년모임을 갖고 귀가하던 참에 황당할 일 겪었다.

음식점에 들어서면서 신발장에 고이 모셔뒀던 구두가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25만원이나 들어 큰 맘 먹고 장만한 뒤 몇 차례 신어보지도 않았었다. 한씨는 음식점 주인에게 부탁해 신발장을 다 뒤지고, 다른 손님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봤지만 신발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다.

결국, 한씨는 음식점 주인에게 부탁해 슬리퍼를 빌려 신고 집으로 향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광주광안경찰은 26일 한씨의 신발을 출진 혐의로 유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착각해서 한씨의 구두를 신고 갔다고 진술했지만 신발

사이즈가 10mm나 차이 나는 상황이었다.

한씨의 사례처럼 최근 연말 연시를 맞아 송년모임 많아지면서 신발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날 또 광안경찰은 음식점에서 여성용 부츠를 훔친 김모(여·52)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새벽 1시경 광주시 우산동 한 음식점에서 김모(여·38)씨의 43만원 상당의 여성용 부츠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한 식당에서 16만원 상당의 신발을 훔친 40대 주부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12일에도 광주시 동구 운림동 한 식당에서 30만원 상당의 신발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서울대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

#### 학교측 철거

서울대 일부 학생들이 26일 교내 학생회관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분향소 설치를 강행했으나 학교측이 이를 철거했다.

농생명과학대학 학생 박모(여·22)씨와 남학생 2명은 이날 낮 12시44분께 국화꽃 한 다발과 책상, 향로 등을 들고 학생회관 1층 식당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박씨 등은 김정일 위원장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책상에 올렸다.

그러나 이들이 분향을 시도하자 현장에서 대기하던 본부 직원들이 이를 제지했고 박씨와 10여분간 설전을 벌였다. 이어 박씨 등이 철수하자 교내 청원경찰과 직원들은 곧바로 분향소를 철거했다.

관할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학생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에 저촉되는지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소환조사 등 향후 계획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코리아연대 대표 조문 방북... 檢 조사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황혜모(여·35) 공동대표가 지난 2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리아연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 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대표가 지난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항공편으로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해 같은 날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 ‘출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황 대표가 24일 12시55분에 베이징을 출발, 오후 4시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실제 조문을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동행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코리아연대는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황혜모 공동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황씨가 중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국보법상 잠입·탈출죄에 해당하며, 찬양·고무죄 적용도 검토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북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주 노래방 불 2명 사망

26일 새벽 0시 50분경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나 노래방 주인 최모(60)씨와 손님 이모(30·여)씨가 직격탄을 맞았다. 또 이씨의 남편 조모(30)씨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노래방 내부 120㎡를 태워 2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천장에서 ‘지 지직’하는 소리가 나면서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뇌경색 의식불명 노동자 몸에서 명자국 발견 수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경색 상태에 빠진 50대 일용직 노동자의 몸에서 명자국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광주광안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경 광주시 도산동 모 부대 관사 신축공사 현장경찰과 직원들은 곧바로 분향소를 철거했다.

정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경색 증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른쪽 앞구리와 팔에는 명자국이 발견됐다. 정씨의 동생(45)은 지난 2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멍이 든 부위가 크지 않고, 머리와 안면 부위 등에서 의상이 발견되지 않아 일단 타살 혐의는 없다”며 “함께 일하던 근로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재워줬더니 선배 돈 수백만원 훔쳐

○~거처가 없는 자신에게 작은 방에서 살도록 해준 선배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배은망덕한 30대가 경찰서행.

○~26일 광주광안경찰에 절도 혐의로 입건된 박모(32)씨는 지난 25일 새벽 1시30분경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한모(39)씨의 집에서 한씨와 또 다른 일행들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안방에 침입, 230만원 상당의 수표를 훔치는 등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33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쳤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최근 머물 곳인 마땅치 않아 한씨의 집에 거주하게 된 박씨는 훔친 수표 등을 본인이 임시로 생활하고 있는 작은 방 장판 밑에 보관했다가 들뜬.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예약접수 중

개강: 1월 2일

# 2012년 공무원 합격실명회 2012년

## 이것만 알면 합격한다!

일시: 12월 27일 오후 2시 30분 [좌석관계로 예약자 선착순 입장]

7: 종합반 9: 종합반 범원사기반 7: 검철직 소방직 농업직 9: 아간반 기술직 사법직 직영 경력반

당일 이벤트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무료증정  
종합반 교재 5권 무료추첨 5명  
영어/한국사 교재 2권 무료추첨 10명

## 대한민국 대표 고시학원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